

보고서

조재영

단체

단체: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건강검진센터, 지역사회의료센터,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63번길26(법동)

주간보호센터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서로83 럭키스포츠프라자 5층

활동기간: 0607~0624

단체 소개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의료와 복지사업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건강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지역사회에 의료, 돌봄 서비스 제공과 같은 공공적 성격의 역할을 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조합원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운영합니다. 의료, 건강,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민(조합원)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 이용합니다. '환자권리장전'을 준수하고 노인,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지원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연계합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 자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건강한 마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의 업무와 업무의 대한 생각

많은 의료사협중 민들레를 선택한 이유는 방문의료가 잘되어있었고 건강반 활동이라는 주민 소모임이 많았다. 그리고 건강리더 교육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서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거 같았다. 큰 기대를 하고 갔지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팀장님이 스케줄을 짜주셨지만 자세한 스케줄은 몰랐다. 정해진 스케줄은 9시 출근, 매일 오전 주할아버지와 전단지홍보, 수, 금 건강검진센터 문진표작성 도움, 목 오전 건강리더교육 참여, 월, 목 오후 건강반참여 까지 3주 동안 정해진 스케줄이었고 다른 일들은 그때그때 찾아서 즉흥적으로 주셨다. 그래서 기본적인 일에서 변경되는 일이 꽤 있었다. 그래도 다양한 일들을 했다. 내가 한 일들은 CD통에 맞춰서 표지 자르기, 증자, 출자 해주신 분들 이름표 잘라서 붙이기, 건강반활동 어시 (출석체크, 조각통장 날짜, 활동내용, 금액, 도장 찍어주기, 사진 찍기), 건강리더교육 참여&뒷정리, 방문간호참여, 방문, 건강검진센터 문진표 작성도움과 안내 등 다양하게 일을 했고 일이 없을 때는 일지와 영상편집, 독서 등을 했다. 다양한 활동들을 했지만 3주간 똑같은 일상이 후반 들어서는 조금 지겨웠었다. 조금 더 가까이 간호사를 볼 수 있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내 위치의 한계가 있어서 아쉬웠다.

구체적인 하루 일과(일정포함)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밥 먹고 617번 버스를 타고 40~50분을 달려서 8시30~40분에 사무실에 도착한다. 인사를 하고 9시까지 책을 읽거나 영상편집 연습을 하고 9시가 되면 그날 일

정 따라 움직이고 12시30분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하고 2시부터 일정 따라 움직이고 4시 40분부터 일지 쓰고 5시에 나와서 617번 버스타고 퇴근한다. 집 도착해서 밥 먹고 운동하고 씻고 취침

월	화	수	목	금
6	7 첫 출근 -팀장님과 미팅 -단체소개 영상 시청 -시설OT -총회참여 -소식지 읽기 -희섬쌤 만남	8 -건강검진센터 문진표작성, 안내 -전단지 홍보 -독서	9 -건강검진센터 문진표작성, 안내 -건강리더교육 -건강반 활동 어시	10 -건강검진센터 문진표 작성, 안내 -독서 -이름표 붙이기 -내선번호 배우기 -석연희 이사장님과 독서
13 -전단지 홍보 -장기수 할아버지 방문의료 -건강반 활동 어시	14 -전단지 홍보 -영상편집 -주간보호센터 건축 담당자 만남	15 -건강검진센터 문진표작성, 안내 -전단지 홍보 -영상편집 -CD통 맞춰 표지 자르기	16 -영상편집 -건강리더 교육 -건강반 활동 어시 -병곤쌤 만남	17 -건강검진센터 문진표 작성, 안내 -장애인분들과 연극관람&지도 -참선 분들과 카페 -발대식 준비와 마무리
20 -전단지 홍보 -건강반 활동 -독서	21 -심부름 -이름표 붙이기, 독서 -리포트 쓰기 -이지명 간호부장님 인터뷰	22 -건강검진센터 문진표 작성, 안내 -박원장님 강의 -독서 -황정인 간호사님 인터뷰 -표 복사	23 -건강리더 교육 -건강반 활동 어시 -주 할아버지와 팀장님과 카페	24 -이름표 수정하기 -심부름 -외식 -기초생활수급자분 방문요양 -끝

기억에 남는 일들

많은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한 활동은 주할아버지와 전단지를 나눠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다.(전단지 홍보) 매일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해서 할아버지와 엄청 친해졌다. 주할아버지는 아시는 게 많으시다. 가끔 tmi를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 의미 있는 tmi다. 이야기를 하면서 배운 게 엄청 많다. 많은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조언 명언도 잊지 않으신다. 주로 대안교육, 간호사, 미래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첫 대화 때는 대안학교는 양아치, 불량학생들만 가는 곳으로 생각해서서 가서 뭘 배우냐고 엄청 물어보셨다. 처음에는 주 할아버지가 대안학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이나 대안학교의 이미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더니 할아버지가 다른 방향으로 애들을 보낸 거구나 하시면서 대화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던 대안학교의 대한 편견을 바꾸셨다. 내가 편견 없이 할아버지를 바라본 거 같아서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도 나도 편견 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다. 3주간 이야기를 하면서 할아버지와 손자처럼 지냈던 거 같고 많은 조언을 해주셨다. 인생선배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많이 배운 거 같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간호사가 된다면 주할아버지를 뵈러 민들레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마지막 날에 할아버지를 뵈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집에 오고 나서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해주셨다. 마지막 주에 매일 해주셨던 말을 또 해주셨다.

개인무빙 마지막 주부터 간호학과 학생분들과 작업치료학과 학생분들이 실습을 나오셨다.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소개해주는데 나도 실습생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웠다. 뭔가 엄청 초라해지고 진짜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같이 교육이랑 강의에 참여했는데 대학교 실습생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게 너무 부끄러웠다. 작업치료사분과 대학교 실습생들이 방문의로 나가는 거 보고 나와 다른 위치에서 실습하는 게 너무 부러웠었다.

처음으로 방문의료를 가는데 가는 곳이 장기수 선생님집이라 장기수 선생님들에 대해 공부를 하고 갔었다. 첫 방문의료라 신기했고 조심스러웠다. 장기수 선생님은 귀가 어두우셔서 대화를 하지는 못했지만 옆에 오신 6.15대전 본부 선생님이 장기수선생님의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신기했다.

소감

민들레 의료복지사협에 오게 된 이유가 방문의료가 좀 컸다. 방문의료에 많이 따라가서 방문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를 하는지 어떻게 환자와 지내는지 그리고 이런 곳에서 간호사분들은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가 간호실습생도 아니고 아무 전문기술, 자격도 없는 그냥 단지 간호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이었다. 그래서 의료 쪽 활동을 하기 어려울 거 같았는데 다행히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문진표 작성 같은 걸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의료인들 옆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 좋았고 감사했다. 그리고 민들레는 의료기관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건강증진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들을 듣고 같이 하면서 의료기관에서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가장 중요한건 건강을 유지시키는 것이었고 그 활동들을 하면서 유지 하는 법, 왜 이런 걸 하는지를 많이 봤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의사들이 어떻게 환자들과랑 상대하는지와 생각하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건강반 같은 활동들을 하면서 즐거웠다. 초반에는 힐링이 됐고 후반에는 이해가 됐다. 진짜 좋은 프로그램들 덕분에 많이 활동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조금 아쉬운 건

사람들과 친해지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오래있었다면 친해질 수 있었을 거 같다. 그래도 많은 경험 하고 가는 거 같다.

불안한 마음으로 무빙을 시작했었다. 받아주기는 했지만 조금 불안과 우려를 안고 받아준 거 같아서 환영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았었다. 하지만 첫 출근하고 나서는 그런 느낌이 사라졌다. 옆에 같이 앉은 박혜란 센터장님이 적응하는걸 도와주셔서 그런 생각을 잊고 다닌 거 같다. 첫 주는 너무 낮가렸었다. 팀장님도 막 그렇게 챙기주지는 못하셔서 조금 힘들었다. 일들도 익숙하지 않았고 사람도 익숙하지 않았다. 점심시간에도 사무실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 친해질 기회도 거의 없었다. 그래서 몇몇 분들하고만 친해질 수밖에 없었다. 익숙하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이라도 친해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게 좀 많이 아쉽다.

인터뷰

이지명 간호부장님과도 인터뷰를 나눴지만 자료집에는 넣지 않아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황정인 요양주치의 팀장님(전 간호사)님 인터뷰만 자료집에 넣었습니다.

1. 성함과 현재 계시는 기관을 이야기해 주세요.

황정인 간호사님: 네 저는 황정인이고요 민들레 의료사협에서 주민참여 건강증진센터에서 요양 주치의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2. 간호사를 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황정인 간호사님: 그냥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딱히 간호사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엄마랑 언니가 그냥 원서를 넣었어 간호학과로 그래서 가게 됐어요.

의지가 없었는데 엄마랑 언니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여자들이 간호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하는 게 더 좀 좋겠다. 그래서 직장을 가질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원서를 넣고 그때만 해도 나는 여기는 졸업은 해도 간호사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3. 간호사를 선택했을 때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황정인 간호사님: 주위 반응은 좋았지 내가 이렇게 간다고 하니까 좋았는데 저는 사실 잘 몰랐어요. 제 길을 내가 간호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생각도 안 해본 분야라 가지고 해도 안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저는 3년을 우선 간호과를 다녔는데 다니면서 그냥 해야 되니까 했고 근데 이게 은근히 좀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았고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취업으로 그냥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도 이어지고 해서 그냥 계속 하게 됐었어요.

4. 간호사 일을 몇 년 동안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황정인 간호사님: 간호사 실제 임상에서는 제가 응급실에는 한 3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요양병원에 갔었거든요.

거기서는 한 4년 조금 안 되게 근무를 했었고 이후에는 이제 결혼하고 출산하고 하면서 조금 쉬다가 민들레에 입사를 했어요 처음 민들레에 입사할 때는 보건 예방실 업무로 들어왔었어

요. 보건예방실 업무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검진센터 가서 또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또 방문팀으로 와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장애인 건강 조치라고 해가지고 방문하는 업무를 한 2년 하다가 지금은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의 영양주치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에서는 한 7년 정도 하고있고 임상에서는 한 4년 요양병원에서 3년을 했습니다.

5. 간호사를 하시면서 병원에서 가장 보람찼던 일은 무엇이 있었나요.

황정인 간호사님: 보람 찼던 일은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응급실 할 때는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가 왔을 때 어쨌든 응급 처치를 잘해서 수술실로 올리든지 아니면 중환자실로 올릴 때 어쨌든 살았잖아요.

그때 굉장히 내가 좀 잘했다. 이렇게 좀 좋았죠.

6. 그럼 반대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였어요.

황정인 간호사님: 병원에서는 힘든 거는 사람 관계거든요.

이게 병원가기 전에도 배워 학과 교육할 때, 왜냐하면은 간호사라는 직군이 원무과랑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방사선과랑도 사이가 좋아야 되고 또 약재과나 원장님들과 여러 관계들이 다 이렇게 섞여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역할이니까 그리고 또 환자를 돌봐야 되는 어떤 역할도 있고 보호자를 또 설명해야 되고 여러 역할 중에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 인간관계 이런 게 좀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중에서도 이제 같은 동료들끼리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만 태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적이 많았지 이게 그래도 지금은 태움이 있다고 하면 막 어디 올리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통로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사실 억울해도 어디 말할 데가 없었거든요. 신규였을 때는 억울해도 어디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당하면 당하는 대로 이렇게 좀 수긍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죠

7. 그런 것들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뭐였나요?

황정인 간호사님: 좀 내가 수동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냥 했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한 것 같아요.

8. 실습 나갔을 때 힘들었던 적은 없으셨나요?

황정인 간호사님: 진짜 너무 옛날 일이라 기억이 안 나는데 실습 나갔을 때 실습 나갔을 때도 참 힘들죠 신규 간호사일 때처럼 이제 실습 나갔을 때도 여러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배웠지만

그거를 이제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 이게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변을 배출할 때 넬라톤이라는 게 있고 폴리라는 게 있어 이론적으로 다 알지 넬라톤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변을 빼는 거고 폴리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소변 배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소변 양을 측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두 개를 카테터를 두 개를 딱 보여주면서 어느 게 넬라톤이고 어느 게 폴리아 이렇게 물어보면 둘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좀 달라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론 쪽으로 배웠지만 어떤 게 넬라톤이고 어떤 게 폴리야 이렇게 했을 때 뭔지 모르겠다. 이론과 이제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9. 간호사 병원에 계셨을 때 무슨 일을 해요?

황정인 간호사님: 응급실에서

환자가 딱 왔어 네 그럼 우선 바이탈이 제일 기본이예요.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체온 재고 그리고 멘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동공도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보고 산소 포화도 있는지 이런 거를 봐서 어쨌든 같이 이거를 동시에 막 하는 거지 원장 과장님이랑 같이

환자 컨디션을 계속 다 파악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수액 달고 컨디션에 맞게 어쨌든 약물 처치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tv 같은 데 보면 인투베이션이라 해가지고 기도 삽관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시스트 해가지고 빨리 원장님 할 수 있게 준비해가지고 딱 하고 검사할 수 있게끔 이런저런 일 다 해야지 했지 그다음에 이제 간혹 기록하고 그런 일을 했었나 대략 어떤 간호 처치적인 거 다 하는 거죠.

10. 민들레를 들어가시게 된 이유

황정인 간호사님: 여기 입사하게 된 이유 네 이런 것도 너무 솔직하게 얘기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직장을 가지고 싶고 그랬을 때 그 직장을 구할 때 제일 우선순위가 주 5일째였어요. 왜냐하면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가 많잖아요. 보통 2 3차 병원에는 다 교대 근무고 그다음에 1 차 병원은 이제 조무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간호사를 구직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면 주 6일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의원급은 다 토요일도 진료하잖아요. 난 제일 중요했던 게 주 5일 근무였어 근데 여기를 봤더니 주 5일 한데 그래가지고 입사를 하게 됐죠.

11. 민들레와 병원에 다른 점은 뭔가요?

황정인 간호사님: 민들레 제 생각에는 제일 처음에 느꼈었던 거는 예방 활동을 하는 게 진짜 달랐어요. 병원은 이제 어떤 아프고 뭐 진단이 나면 치료하는 게 주 목적이잖아요.

근데 민들레는 어떤 예방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달랐고 그리고 또 지금은 통합 돌봄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좀 다른 거라 생각해요.

제가 지금은 다른 병원에서도 어떻게 사회사업팀 이런 곳에서

그 환자를 전체적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을 잘 연계를 어떻게 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에 봐서는 민들레니까 어떤 통합 돌봄 사업을 하고 그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사실 예방 활동이라는 게 지역 그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좋지만 사실 돈이 되지 않는 사업이잖아요.

병원은 아파서 와야지 돈을 벌고 이렇게 하는 곳인데 우리는 사실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든다 이런 데 또 의미를 두고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그게 다른 점이 아닐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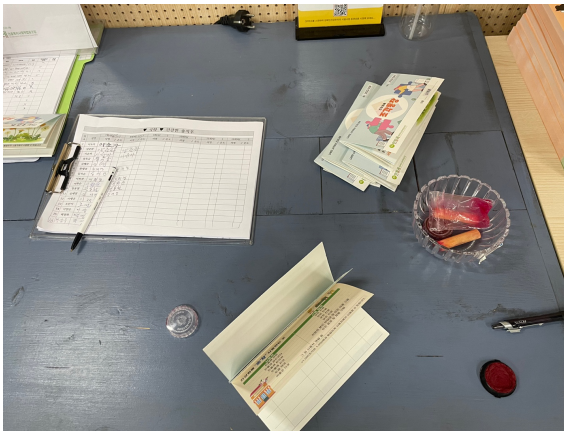
활동사진



건강반 활동



건강리더교육



건강반활동



건강검진센터



발대식



전단지 홍보(주할아버지)

일지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7일 화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10시10분에 민들레의원에 도착했다. 사실 10시에 도착했는데 떨어져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들어왔다. 박현주 팀장님을 만났다. 조합사무실 안에서 인사했는데 정말 떨렸다. 민들레 의료사협에 대한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출근시간을 들었다 그리고 의료기관들을 한 바퀴 둘러봤다. 수,목 일찍 나와서 문진표 작성을 도와주는 일을 해야한다. 밥을 먹고 총회(?)를 했다. 각 의료기관의 활동내용 같은걸 듣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소개하고 나간사람들을 이야기 해주셨다. 그리고 부이사장님이 오셔서 간호사 분들과 이야기를 했다.	
오후	총회가 끝나고 영상편집 앱을 다운받았다. 영상편집을 연습하기 위해 유튜브 강의도 봤고 박현주팀장님이 소식지 같은걸 주셔서 보고 건강반 종류를 찾아봤다. 그리고 이름표 종이를 민들레 의원에 붙였다. 그리고 담임 쌤이 와서 미팅(?)을 했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오늘은 첫날이라 굉장히 떨렸고 모든 게 신기했다. 박현주 팀장님이 스케줄을 짜주셔서 3주간 재밌을 거 같다. 학교에서 그래도 조금 공부하고 온 게 좀 도움이 된 거 같다. 회식 쌤과 미팅때 박현주 팀장님의 말씀을 듣고 간호사가 꼭 돼서 민들레 의료사협에 오고싶었다. 민들레 의료사협은 학교랑 비슷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기업이고 회사고 의료기관이지만 분위기는 협동조합, 간디학교와 비슷했고 익숙했다. 조금 더 다니면 편해질 거 같다.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고 엄청 열심히 다닐 거다.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8일

수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9시에 출근을 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로 건강검진센터로 갔다. 간호부장(?)님에게 문진표 작성하는 법을 듣고 조끼와 이름표를 달고 앉아있었다. 초반에는 할 게 없어서 그냥 앉아있었다. 그러다 한 분이 신발을 신고 센터에 들어오셔서 간호사님이 슬리퍼로 갈아 신으라고 안내를 해드리라고 하셨다. 일이 늘어서 좋았다. 어머님 한분이 슬리퍼를 신으러 오셨는데 내가 '검진 하러오셨어요?' 하고 물으니까 깜짝 놀라셨다. 그리고 어머님 문진표 작성을 도와줬다. 아버님도 오셔서 돋보기를 찾으셔서 알려드렸다. 아까 앉아있을 때 주위를 둘러보다가 발견해서 다행이다. 그리고 젊은분 2분을 안내를 해드렸고 그리고 민들레 의원 간호사님과 함께 오신 할머니분을 도와드렸다. 할머니에게 안내와 문진표 작성을 도와드렸다. 오늘 배운 거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렸다. 그리고 주웅식 할아버지와 민들레 주간복지센터 전단지를 돌렸다. 할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가 아시는 대안학교는 불량 학생들이 오는 곳이라 생각하셔서 우리학교에 대해 말씀드리니 이해를 해주셨다. 주웅식 할아버지는 주간복지센터의 총괄(?)을 맡고계신다. 85세정도의 나이인데 엄청 정정하시다. 좀 편안해졌었다. 할아버지가 미션도 내주시면서 재밌게 전단지를 돌렸다. 그러다 편축마비가 있으신 할머니가 건강검진센터 2층을 가셔야 하셔서 도와드렸다. X선까지 데려다드렸다. 그리고 밥을 먹고 (고등어, 계란찜, 국 진짜 맛있음)	
오후	점심시간이라 올라와서 팀장님을 기다리며 책을 봤다. 팀장님이 오셨지만 무슨 책을 읽는지만 물어보시고 일을 하러 가셨고 나는 계속 책을 읽다가 책 내용에 대한 즐거운 메모를 하면서 퇴근시간까지 시간을 보냈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음.. 오전에는 하는 게 많아서 즐거웠지만 오후에는 이게 맞는건가 싶었다. 그래도 책을 진짜 잘 읽혔다. 학교에서는 애들 이야기가 궁금하기도 해서 집중을 못했는데 여기는 대화들이 궁금하지 않는 대화라서 책에 집중이 더 잘된 거 같다. 그래도 그 전 날보다는 어색하지 않았고 조금 더 편했던 거 같았다. 근데 아직 아쉬운건 팀장님과 박혜란 센터장님만 내 이름을 아시는거다. 학생이라고 부르신다. ㅎㅎ 조금 더 지내면 관찰아지겠지?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8시40분 회사 도착! 아침에 학교에 낼 일지를 썼다. 그리고 건강검진 센터에 가서 조끼를 입고 이름표를 달았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오셨다. 자매 분들이 오셨다. 두 분 다 문진표 작성을 도와드렸다. 돌보기가 필요하시다 해서 드리고 도와드렸다. 물론 안내도 도와드렸다. 그리고 한 분이 잠깐 문의만 한다고 슬리퍼를 신지 않으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시게 했다. 그 분한테는 유도리 있게 했지만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해도 되는건지 의문이 들었다. 좀 실수한 거 같다. 9시 50분에 건강리더 교육을 받으러 갔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몸이 안 좋으신 분들, 할머니 분들 등 계셨다. 교육은 먹거리에 대한 교육이었다. 그리고 마무리를 같이 해드렸고 올라가서 학교 일지를 마저 썼다.	
오후	밥을 먹으러 왔다. 주웅식 할아버지가 안계셔서 박현주 팀장님과 밥을 먹었다. 진짜 맛있었다. 그리고 한발레츠에 가서 유자에이드를 먹으면서 팀장님과 이야기를 했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고 좀 더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재밌었다. 그리고 간호사 분들을 인터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책도 받고 바로 건강반에 들어갔다. 건강반에서 이름표 적기, 조 각통장에 날짜 등 적고 도장찍기를 했고 사진찍어달라고 부탁하셨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세팅을 해야한다고 하셨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몸 체조같은걸 하신다. 옆에서 사진도 찍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밌게 하는걸 보고 나도 재밌었고 즐거웠다. 웃으면서 이야기 하시면서 하는 걸 보고 계속 건강반에 나오고 싶었다. 건강반 2팀을 하고 마무리 하고 보니 4시50분이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오늘은 진짜 뭘 많이 한 거 같다.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문진표 작성도 익숙해졌고 외웠다. 그리고 안내하는것도 자신감 있게 했다. 키랑 시력 재보고 싶다.(쉬는시간에..) 그리고 건강반 활동 보조를 했는데 할게 은근 많아서 지루하지 않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 하면서 하니까 즐거웠다. 한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 주셨다. 일주일동안 정말 힘들었고 죽을뻔 하셨다고 그리고 뭘 하시고 했는지 모른척도 있다고 이야기 해주셨다. 여기 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간호사가 하고싶다. 아니 간호를 하고싶다. 이런 걸 해결해줄 수 있고 싶었다. 건강반은 재밌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인사해 주시니까 계속 하고 싶었다. 다음번에 오실 땐 알아봐주시면.. 많은걸 배운 하루였다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10일

금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오늘도 8시40분쯤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건강검진센터에 가서 11시까지 안내와 문진표 작성을 도와드렸다. 오늘은 사람이 제일 많았다. 근데 할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다 끝나고 사무실에 와서 일지 쓰고 책 읽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수육, 오뎅탕)	
오후	밥을 먹고 방문의료를 따라 갔다. 조금 늦게 가서 주사맞는 것만 보고 통 2개를 들고 의원에 가져다줬다.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박혜란 센터장님과 이야기 하고 책을 봤다. 그리고 증자, 기부 해주신 분들 이름을 붙이러 의원으로 가서 붙이고 왔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받고 내선 번호도 받아서 전화가 울리면 내선번호를 눌러 전달해드리는 것도 배웠었다. 그리고 석연희 이사장님 옆에서 책을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사람이 많아도 할 게 없을 때도 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이라 내가 찾아서 하는 게 불가능 한 거 같다. 방문의료를 잠깐 따라갔었다. 처음으로 나준식 원장님을 뵈다. 환자분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발달장애가 있는 분 같았다. 소리 지르시면서 싫다고 때를 쓰셨다. 나준식 원장님과 간호사분들은 차분히 기다려주셨다. 그러곤 진정되고 주사를 놓으셨다. 늦게 와서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기다리신 거 같다. 대단하다. 많이 겪어보신 거 같아서 진짜 차분히 말씀하셨다. 통 2개를 가지고 의원에 가져다 뒀다.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의원에 가서 병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었다. 진짜 신기했다.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13일 월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오늘도 8시40분 도착했다. 9시부터 주웅식 할아버지와 전단지를 나눠드렸다. 주웅식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웃는게 정말 호탕하시다. 주욱식 할아버지와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간호사, 비전향 장기수 할아버지, 공부 등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미순 가정간호사 분과 장기수 할아버지인 최일현 할아버지를 방문간호 하러 갔다. 최일현 할아버지에 대해 6.15 대전 본부 선생님이 알려주셨다. 최일현 할아버지가 귀가 어두우셔서 이야기를 못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깍두기, 나물 맛있었다)	
오후	밥을 먹고 바로 1시에 건강반을 준비하러 전성옥 선생님과 사회 복지센터로 갔다. 가서 의자 놓고 할머니들을 맞이하면서 조각통 장에 도장 등등 찍어드렸다. 그리고 두 번째 건강반이 와서 똑같이 했다. 건강반은 노래 들을 때 마다 즐겁다. 그리고 뒷정리를 하고 일지를 쓰고 있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오늘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알아본 장기수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의 집은 깨끗했다. 할아버지의 몸 상태를 처음 본 나는 안 좋다고 생각 했지만 많이 좋아진 거라고 하셨다. 좀 통통 붓고 빨갛다. 심한 화상을 입은듯한 느낌이었다. 할아버지 귀가 안좋으셔서 가정간호사님의 말을 잘 못들으셨다. 소독을 하고 약을 발랐다. 발이 너무 안 좋아 보였다. 그리고 6.15 대전 본부에서 선생님이 오셔서 최일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가 어떻게 군에 지원했는지 어쩌다 내려와서 잡히셨는지 왜 2차 송환이 진전이 안 되는지 군에는 몇 년 있었는지 들었다. 다 내가 찾아본 것들을 다 말해주셨다. 엄청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너무 힘 들으셨을 거 같았다. 정부의 단점이다.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말만 하고 못하고 임기가 끝이 났다. 옛날의 법도 이상하고 옛날의 방식이 너무 이상하다.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쓰던 법을 이름만 바꿔 우리의 적인 북에게 쓰고 있다. 이게 일본이랑 뭐가 다른가 싶었다. 얼른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할아버지의 여생을 북에서 보냈으면 한다. 국군포로,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등 피해 입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더 이상은 피해입지 않고 사시면 좋겠다.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대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14일 화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오늘은 아침이 개운했다. 그리고 사무실에 온 뒤 조금 앉아 있고 주웅식 할아버지와 전단지를 돌리러 갔다. 주웅식 할아버지와 이야기 하는건 인생 선배와 이야기 하는 거 같아서 기분이 좋다. 그리고 중간에 전의수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이경민 작업치료사님께서 할아버지의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도와달라고 하셔서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드려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해주시라고 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고 올라와서 영상편집 연습을 했다. 생각보다 쉬웠다. 영상을 보고 따라서 만들었다. 저번 주 주말에 간 농구 경기영상을 편집했다.	
오후	밥을 먹었다(삼치 데리야끼구이, 감자국, 오이소박이,) 진짜 맛있다. 다먹고 올라오자마자 편집을 계속 했다. 익숙치는 않았지만 오랜만에 집중했다. 스케치업이랑 비슷해서 빠르게 손에 익었다. 다하고 박혜란 센터장님과 주간 보호센터의 담당자님을 보러 갔다. 왔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주웅식 할아버지는 아시는 게 엄청 많으시다. 이야기 하다보면 간호사를 얼른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전단지는 많이 돌리지 않지만 할아버지와 도란도란 정치이야기, 대학이야기, 민들레이야기 등등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는건 없지만 얻는건 엄청 많다. 무언갈 깨닫게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서 나를 걱정 해주시기도 한다. 매일매일 보지만 정말 재밌다. 그리고 즐겁다. 할아버지는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 같다. 하지만 지루하지 않고 재밌다. 이런 인생강의를 언제 들어나 볼까? 싶다. 대안학교에 대해 조금만 말해도 대안학교의 중요 포인트를 잘 잡으신다. 할아버지를 보러 간호사가 돼서 빨리 와야겠다. 개인무빙을 잘 왔다. 보면서 배우는게 많다. 실습이 오는분이 있다. 그분은 더 부럽다. 잘알고 배우는건 더 쉽다. 그래서 부러운거 같다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오늘은 일찍 눈이 떠졌다. 컨디션이 너무 좋았다. 사무실에 도착하고 건강검진센터로 갔다. 사람이 좀 계셨다. 근데 내가 도와드릴 만한 건 없었고 이미 다 끝낸 사람들이었다. 그리고는 사람이 거의 안 왔다. 2주중에 가장 적은 날이었다. 허애령 원장님이 내가 심심해하는 거 같아보여서 불렀다고 하셨다. 조금 아주 조금 이야기를 나눴다. 진료실도 둘러봤다. 그리고 주웅식 할아버지와 전단지를 돌리러 갔다. 비가 와서 그런지 건강검진 센터도 그렇고 거리도 그렇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도 틀고 부르면서 할아버지랑 있다가 할아버지가 발톱이 아프셔서 나원장님 만나러 가셨다. 그리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이야기를 나눈 할머니가 집에 가시려고 하셨다. 할머니가 많이 배우고 가라고 센터에서 뭐든 해보라고 시간 엄청 빠르다고 많이 해보면서 살라고 해주셨다.	
오후	그리고 밥을 먹고 (치킨너겟) 밥을 먹으면서 박현주 팀장님과 주 할아버지가 대안교육에 대해 이야기 하셨다. 그리고 사무실로 올라와서 영상편집 앱을 다시 찾아보고 깔았다. 그리고 자막 넣는 연습을 했다. 그리고 박현주 팀장님이 할 일을 주셨다. CD에 넣는 종이를 자르는 걸 했다. 다하고 편집을 마저 하고 일지를 쓴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영상편집을 연습하고 주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다. 시간 빠르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동안 알차게 지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일기도 꾸준히 써야한다. 그래야 그때의 내 생각과 상황을 알고 다시 생각할 수도 있다. 일정이 뭐 없는날 내가 알아서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책일 읽고 생각을 쓰던 영상편집을 연습을 하더 해야한다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8시반에 도착해서 10시까지 영상편집 연습을 했다. 그리고 건강리더 교육을 받으러 갔다. 요번에는 건강반이 무슨 활동들을 했는지 건강반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이야기 하셨다. 유튜브에 나온 건강반을 소개 하였고 건강반 소개 영상을 보기도 했다. 건강반이 엄청 다양했다. 그리고 다른 건강반 소개를 듣고 뒷정리를 하고 새로 산 의자를 날랐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영상편집을 완료하고 어제 폰으로 써놓은 일지를 썼다.	
오후	그리고 밥을 먹었다(미역국, 코다리찜, 도라지 무침) 엄청 맛있다. 먹는 중에 나원장님이 오셨다. 처음으로 이야기 해보고 다른 참선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박현주 팀장님이 빵과 음료를 사주셨다. 먹으면서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편집 프로그램을 또 알아봤다. 곰믹스가 너무 단순하다고 해서 조금 더 세밀한 프로그램으로 바꿨다. 그리고 건강반을 활동을 갔다. 한던 중 병곤쌤이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다. 그리고 건강반 활동을 마무리 하고 사무실로 왔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영상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다. 근데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아 졌다. 오늘 나원장님을 처음 뵈었다. 저번 방문 의료때 아주 잠깐 봐서 이야기를 못했지만 요번에는 했다. 신기했다. 책과 유튜브에서 보였던 그대로다. 그리고 건강반을 했는데 건강반 전에 박현주 팀장님이 박혜란 센터장님과 전단지를 나눠드리고 오라고 했는데 건강반도 들어가는 걸로 돼서 어떡하지 싶었다. 일이 많았는데 걸어 찬 느낌이었다. 그리고 병곤쌤이 전화를 하셔서 오신다고 해서 병곤쌤이? 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출장오시는 김에 들렀다고 하셨다. 아는 분을 보면 뭔가 편안해 진다. 혼자 외딴섬에 있다가 외부에서 도움 주러 온 사람을 본 느낌? 오늘 점심때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좋았다. 나도 아직 내가 낮가리는 건 신기하지만 어쩔 수 없다. 박혜란 센터장님과 박현주 팀장님, 주웅식 할아버지와는 많이 대화를 해서 괜찮은 거 같다. 의료사협 이여서 이정도를 볼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같다. 개인무빙은 배우는 것은 많지 않고 보는 게 많다. 3주간 본 게 많아서 좋다. 방문의료를 한번 더 따라가 보고싶다.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17일 금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오늘 9시부터 건강검진 센터로 가서 문지표 작성과 안내를 10시까지 하고 10시부터 이경민 팀장님과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연극을 보러 갔다. 연극을 다 보고 나 혼자서 이분들을 데리고 주공 3단지 까지 갔다. 그리고 식당으로 가서 비빔밥을 먹었다. 참선 선생님들 옆에서 먹고 참선 선생님들과 카페에 가서 아이스티를 먹었다. 국현정 센터장님이 사주셨다.	
오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2시30분에 내려가 발대식을 도와드렸다. 신발 넣기와 이름 적기 사진찍기, 뒷정리, 하기를 했다. 그리고 올라와서 책을 조금 읽고 일지쓰는중이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검진센터에서는 오늘도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몇분을 도와드렸다. 그리고 이경민 팀장님과 연극을 보러 가고 팀장님과 점심을 먹을곳을 찾아봤다.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입구의 턱과 좌식이 아닌 음식점을 찾아봤다. 하나도 없었다.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큰 변수였다. 그 작은턱이 휠체어를 타시는분에게는 굉장히 높은걸 생각하지 못했다. 팀장님이 수원이 대전보다는 괜찮겠지? 라고 하셨는데 잘 모르겠다. 수원도 전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준석과 박경석의 토론도 생각이 났다. 한국은 장애인분들이 살기 힘든 나라인거 같다. 많은 불편함 속에서 살고계시는 분들이 존경스럽고 죄송하다. 연극은 재밌게 보고 돌아왔다. 참선 선생님들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다. 다들 재밌고 편하게 해주셨다.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20일 월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오늘 8시30분에 출근해서 9시부터 주웅식 할아버지와 전단지를 돌렸다. 12시까지 전단지를 돌리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간호대(?) 학생분들이 실습을 하고 나오는걸 봤다. 맛있었다. 밥을 먹었다(돈까스, 자두, 유부국) 진짜 역대급이었다.	
오후	양치하고 바로 건강반을 하러 갔다. 2반의 건강반을 도와주고 와서 책을 읽었다. 오전에 전단지 돌릴 때 뵈분이 계셨었다. 다하고 와서 책을 읽었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오늘 엄청 더웠다. 주할아버지가 부채를 찾으신다. 손풍기를 사려고 했는데 계속 까먹는다. 간호대 학생들을 봤다. 4명이서 무리지어 다니는데 너무 부러웠다. 나도 가서 실습 해보고 싶지만 일단 공부부터 하자고 생각했다. 이번주 계획을 짰다. 건강반을 하러 가는길에 김다슬 쌤이 어르신들과 약속하는게 힘들다고 하셨다. 그 이유를 말해주셨다는데 너무 슬펐다. 어르신들은 넘어지시기만 해도 다치시거나 돌아가신다고 하셨다. 건강반은 너무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이 활동을 꾸준히 하면 조금은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진다. 이 생각을 하고 건강반 활동이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건강반은 즐겁다!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찍 도착했다. 양면테이프를 사러 갔다 온 뒤 의원에 가서 증자, 기부 이름표를 붙이고 주웅식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에게 손풍기를 드렸다. 많은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미역줄기, 돼지고기찌개,)	
오후	책을 조금 읽고 리포트 쓰는법을 찾아봤다. 그리고 조금 쓰고 인터뷰 질문 수정하고 인터뷰를 하러갔다. 이지명 간호부장과 인터뷰를 나눴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할아버지한테 저번주부터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까먹다가 이번에 드렸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걸 보고 기분이 좋았다. 이번에도 학교 이야기랑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리고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려고 했는데 리포트가 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이 책으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서평으로 쓰려고 했는데 너무 안써지고 앞에 내용이 기억이 잘 안나서 다시 읽다가 인터뷰를 하러갔다. 이지명 간호부장과 인터뷰를 했다. 질문지를 먼저 드리고 시간을 조금 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야 했는데 갑작스럽게 해서 간호부장님도 당황해 하셨다. 그래서 이야기가 많이 안나온거 같다. 그리고 간호부장님이 임상에서 몇 년은 해보는건 좋겠지만 계속해서 하는건 추천 하지 않으시다고 하셨다. 많이 힘들고 개인시간이 없다고 조금만 하고 면허증 가지고 다른일을 하는 걸 추천 하셨다. 인터뷰를 하는것만으로도 너무 뜻깊은 시간이고 도움이 많이 된 거 같다.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22일

수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오늘은 오랜만에 건강검진 센터에 갔다. 9시부터 10시30분 까지 있다가 주웅식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박원장님의 강의를 들었다. 간호학과 학생분과 작업 치료학과 분들과 같이 듣고 밥을 먹었다.(짬뽕, 깍두기)	
오후	그리고 점심시간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 쓰던중에 무슨 표를 복사를 했다. 그리고 황정인 팀장님과 인터뷰를 나눴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서 안내와 문진표를 도와드렸다. 이번에는 사람이 많아서 할게 많았다. 외국인 분도 도와드렸다. (한국어 잘하심) 주웅식 할아버지도 오셔서 문진표를 작성하시는데 내가 도와드렸다. 뭔가 일하는곳에 아는사람 온 기분이어서 너무 반가웠다. 그리고 박원장님의 강의를 들었다. 민들레를 찾아볼 때 본것들을 이야기 해주시고 다른 이야기도 해주셨다. 간호학과 학생분들과 작업치료학과 분들과 같이 들었는데 굉장히 이상했고 부끄러웠다. 이도저도 아닌느낌이었다. 독후감(?) 서평(?)을 쓰고 복사를 했다. 복사하는법을 몰라서 종이 3개를 날렸다. 복사기를 자세히 보니까 a4용지칸이 있었다. 뭔가 회사직원 같았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다. 황정인팀장님에게 간호사에 대해 엄청 잘 들었다. 황정인 팀장님은 성격과 간호사가 잘 맞으셨다고 했다. 자세하게 들어서 재밌었고 특이한것도 많았다. 좋은것만 보고 고른다. 안에 내면의 안 좋은 부분은 다 있다. 잘 선택해라 라고 박혜란 팀장님이 이야기 해주셨다. 맞는 거 같다. 좋은 면만 보고 선택을 하고 후회한적도 많다. 잘 보고 선택 해야겠다.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일찍 출근해서 좀 이따가 건강리더 교육을 받았다.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강의 듣기가 정말 편했다. 듣는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하는 강의 방식 덕분에 듣기가 편했다. 강의도 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았고 최근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제육볶음, 곰피,) 나원장님과도 먹었다.	
오후	밥을 먹고 주웅식 할아버지와 박현주 팀장님과 한발레츠에 가서 카페라떼를 먹었다.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눴다. 주웅식 할아버지가 내일 못 오셔서 못 보나 했는데 1시에 오신다고 해서 그때 보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마지막 건강반을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재밌게 건강반을 했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오늘은 건강반 마지막 날이었다. 이제야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끝이다. 아쉽다. 그리고 점심때 나원장님과 밥을 먹었는데 장난도 쳐주시고 재밌게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늘 목요일이 제일 하는게 많았다. 그래서 목요일 마다 기분이 좋다. 이제 하루밖에 안남았다. 선배들 말이 맞는 거 같다. 친해지려고 하면 끝나는거 같다. 그게 좀 많이 아쉽다. 건강반에서 하는 노래가 계속 입으로 나온다. 춤도 거의 외운거 같다 ㅎㅎ		

〈실습 일지〉

이 름 : 조재영

학 교 : 제천간디학교

작성일 : 2022년 6월 24일 금요일

시 간	내 용	비고
오전	오전에 건강검진 센터에 가서 잠깐 안내를 하고 일찍 올라왔다. 올라와서는 의원에 가서 이름표 붙이는 일을 했다. 양면테이프가 없어서 양면테이프를 사러 갔다 온 뒤 엄청 많은걸 다시 붙이고 수리하고를 하고 올라와서 조금 이따 밥을 먹으러 갔다	
오후	외식하는 날이어서 박현주팀장님이 쌀국수를 사주셨다. 먹고 산을 올라가서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잠깐 이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올라와서 박현주 팀장님이 사주신 아이스티를 먹고 있다가 김다슬 선생님과 방문을 갔다. 가면서 오늘 가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갔다. 갔다 와서 숫자를 자르고 코팅하고 개소일을 수정하러 내려가서 붙이고 왔다. 마지막 일이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왔다.	

오늘 배운 것. 생각과 느낌

김다슬 선생님과 기초생활수급자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들었다. 방문을 한번 가봐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도 듣고 상황도 듣고 하니까 좋았다. 박혜란 센터장님이 성심당에서 빵을 사서 주셨다. 마지막날에 박혜란 센터장님, 주웅식 할아버지를 못뵈서 좀 아쉬웠다. 3주동안 많이 보고 민들레라는 곳을 알아간 거 같다. 간호사라는 꿈을 좀 생각해봐야겠다.

